

작은 꽃

주요 날짜:

- 7 월 2 일
Soup Kitchen 봉사
- 7 월 5 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 7 월 9 일
성경모임
- 7 월 23 일
월례회

다음쪽:

성경모임
5 월 월례회
이달의 작은 사람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제 탓이요

요즘 들어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기억하는 말은 “제 탓이요”이다. 물론 속으로 남들이 알아 듣지 못하게 조용히 중얼거린다. 하루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의 삶속에서 만나는 내 가족과 이웃에서, 그리고 직장 동료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로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른다. 행복한 감정보다는 슬픈 일과 나쁜 일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종종 생긴다. 그 때마다 처음에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하면서 흥분과 분노로 가득 차다가 어느새 곧 “제 탓이요, 제 탓이요”하면서 두세번만 반복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가라 앉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은 내가 프란치스코 형제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신앙의 진리에 대한 교육과 묵상 그리고 기도의 도움이 아닌가 한다. 특히 ‘가난과 순종’은 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어려움이 있다.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 부모님과 생활에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자람 없이 풍요롭게 자라왔다. 그것이 내가 본 삶의 전부라 생각하고 믿었으며, 내가 어린 시절을 모자람 없이 지냈듯이 나의 미래도 모자람 없는 곳에 안주하기를 원했다. 그러는 사이 나의 신앙은 내 편안 한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지내왔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이런일이? 왜 하필 나야?”라는 질문을 내게 던지면서 내 자신과 남을 비교해 보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불평과 주님을 원망하며, 지쳐서 주저앉고, 때로는 주님의 고나품을 놓기를 원한 시간도 있었다. 생각에 따라 말과 행동이 결정되어 변화되듯이 “제 탓이요”하는 한 마디의 말이 내 자신을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회개의 길이 되고 이는 곧 프란치스코 성인

이 말씀하신 ‘가난과 순종’을 따르는 길이라 생각된다.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갖게된 무거운 짐을 왜 나는 벗어 버리지 못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던 요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한다.

김 수옥 베로니카

피정을 다녀와서



Straight Talk

지난 18 일 Buena Park 성서모임센터에서 있었던 서약, 입회자를 위한 피정에 우리 형제회의 서약자(2)와 입회자(3)를 포함하여 9 명이 참석하였다. 피정을 지도해 주신 김 형수 하상 바오로 신부님의 인상 깊은 말씀을 요약해 본다.

영똥한 데 에너지를 소비하며 막상 자신의 성소에는 소홀한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이 많은듯 하다. 성령의 인도로 프란치스코의 신분을 성소로 받은 우리들은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곳에도 한눈 팔지 말고 받은 성소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신앙은 너와 나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이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11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wan
@yahoo.com

이달의 작은 사람



다. 나를 많이 알게 되면 너를 받아들여 이해하게 되고 너를 통해서 그분을 보게 되어 靜(고요)한 기도와 묵상을 하게 되고, 靜, 淨(맑음), 情(사랑)을 바탕으로 한 動(움직임)의 삶을 살게 된다. 靜인 나와 動인 네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어울어져 갈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으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프란치스칸의 향기를 내야 한다. 너나 나나 자신의 ‘똥자루’를 차고 있는 우리는 나의 ‘똥자루’를 먼저 보고, 누워서 침 뱉기 격인 너의 ‘똥자루’는 얘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인지 끊임없이 물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프란치스칸의 삶이다.

[오 어거스틴 정리]

성경모임 - 사무엘 상편



머리를 맞대고 (부딪들?)

사무엘서는 본래 한권의 책이었으나 그 리이스어 번역본을 만들때 두권으로 나누었다고 하며, 이스라엘이 판관시대에서 왕정체제로 나아가는 시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에 읽은 사무엘 상권에서는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의 이야기

와 첫왕인 사울, 두번째 왕 다윗의 초기 활약을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서는 앞의 율법서와는 달리 이야기 책을 읽는 것처럼 재미가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참 왕은 하느님'이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축복이 따른다는 주제는 율법서와 다름이 없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언제 어느 시대에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정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회칙 제 4 조)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다.

[이 사베리아 정리]

5월 월례회

지난달 28 일 월례회에는 Syracuse, New York 에 위치한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의 Laura Abat 수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Rancho Bernardo 의 San Rafael 성당에서 어린이 교리를 담당하고 계신 수녀님께서 재속 형제들과는 첫 만남이시라면서 무척 반가와 하시며, 준비해 오신 성녀 글라라에 관한 자료를 형제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이달의 작은 사람은 주 상란 미셀 자매님입니다. 대천사 미카엘(축일 9월 29일)이 본명 성인이신 자매님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 영세를 받으셨습니다. 1983년 주 광현 분도 형제님과 인천 답동 성당에서 결혼하셨고 같은 해 San Diego 로 오셨습니다. 1992년 남편과 사별하신 자매님은 1남 1녀를 두고 계십니다. 저희 형제회가 준비 형제회로 시작할 당시 영적 보조자 김 성애 마리아 수녀님의 부탁으로 연로하신 자매님들과 방문 수도자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형제회 모임에 참석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매님의 말씀을 옮겨 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입회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분명 주님의 부르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속 프란치스코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유아영세를 받고 고등학교 때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했던 삶 속에서 만나지 못했던 하느님을, 지난 10여년의 재속 프란치스코회로서의 삶 속에서 미약하지만 만날 수 있었기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크리스찬의 삶, 그리고 프란치스코 삶의 여정에서 더 깊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믿기에 감사합니다.’